

Richard Wright의 *Native Son* 연구*

千 勝 傑

(영어영문학과 교수)

I

Richard Wright의 *Native Son*에 대하여 Irving Howe는 “The day that *Native Son* appeared, American culture was changed forever.”라고 언급한 바 있다¹⁾ Howe의 이 말을 다소 과장된 수사적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Native Son*이 미국 흑인문학에 가져온 획기적 변화와 그 문학사적 의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Richard Wright의 문학적 노선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Wright 공방 논쟁²⁾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James Baldwin까지도 “Now the most powerful and celebrated statement we have yet had of what it means to be a Negro in America is unquestionably Richard Wright’s *Native Son*.”이라고 이야기할만큼³⁾ 20세기 흑인문학에서 *Native Son*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크다. 1940년 3월에 발표된 *Native Son*은 이렇듯 문학사적 중요성에 있어서도 곧 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출판된 첫달에 25만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1위의 폭발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1년이 채 안되어 Orson Wells의 연출로 뉴욕의 무대에 올려져 114회의 공연과 이듬해의 리바이벌 공연의 흥행 성공을 올림으로써 1940년대 초의 하나의 문학적 사건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Native Son*의 출판과 함께 쏟아져 나온 수많은 찬반의 서평과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Native Son*에 대한 평가는 Richard Macksey와 Frank E. Moorers가 지적하듯이⁴⁾ “지난 40년간의 미국의 문화적 도그마의 짧은 역사”를 방불케할만큼 다양하다. 사회 추방자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Irving Howe, *A World More Attractive* (New York: Horizon, 1963), pp. 100-101

2) 사회적 항변 (social protest)을 흑인 문학의 본령으로 내세우는, 즉 흑인 문학의 사회학적 의미를 보다 강조하는 ‘Wright’류의 입장과 문학은 궁극적으로 예술이어야 한다는 다시말해 흑인 문학의 미학과 예술적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 사이의 논쟁을 말하는 것으로, Richard Wright에 대한 James Baldwin의 반박, Ralph Ellison과 Irving Howe와의 2차에 걸친 논쟁, Baldwin에 대한 Eldridge Cleaver의 비난등으로 이어져 온 바 있음

3) Edward Margolies, *The Art of Richard Wright*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9), v. 에서 재인용

4) Richard Mackey & Frank E. Moorers, *Richard Wrigh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4), p. 16.

(outcast)로서의 현대 흑인 의식의 탐색 작업을 높이 평가하는 H. S. Canby, Sterling Brown 등의 찬사와 사회비판적 요소를 강조하는 Samuel Sillen 등 좌익비평가들의 극찬, Wright의 인종 편견과 흑인 상황의 과장을 비판하는 David L. Cohn과 Burton Rascoe의 혹평, 그리고 사회적 주제에 대한 공감과 멜로드라마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고루 담은 Malcolm Cowley, David Daiches의 중용적 입장들은 *Native Son*에 대한 출판 당시 비평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비판적 입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대체로 자연주의 혹은 사실주의적 요소, 인종적 주제 및 사회항변적 요소, 심리적 상징적 요소, 실존주의적 혹은 부조리 문학적 요소 등으로 그 분석의 강조점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의 초기 비평이 자연주의적 요소와 사회비판적 요소에 주로 주목한데 반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상징적 요소와 실존주의적 요소, 그리고 새로운 시각의 인종적, 성(性)적 주제 등에 비평의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어 오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도그마와 문학비평이론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Native Son*이 지니고 있는 이와같은 여러 요소중 특정 요소나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기보다는 *Native Son*의 주요 특성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검토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이해를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먼저 *Native Son*의 여러 주요 요소들을 미국소설의 전통의 맥락에서 재점검해 보고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라이트모티프(leitmotif)라 할수 있는 '폭력' 의문제와 이 요소들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탐사해 보기로 하겠다

II

.이 작품의 출판 당시나 그 후의 비평에서 공히 이 작품의 가장 큰 강점으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의 사실주의적 특성에서 오는 강렬한 힘이다. *Native Son*의 창작과정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How 'Bigger' Was Born"⁵⁾에서 Wright는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흑인 사회에 관한 지식을 배경으로 주인공 Bigger를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실험관 안에 넣고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낀대로', '살아있는 인격체'로 그리려 했음을 밝히고 있다.⁶⁾ 그리하여 Wright는 어렸을 때 그의 주위에서 그가 늘 볼수 있었던 다섯 유형의 반항적인 Bigger Thomas 들로부터 그의 주인공 Bigger를 만들어 내었고,

5) *Native Son*이 1940년 3월 출판된 직후 Burton Rascoe는 *American Mercury* 5월호에서 David L. Cohn은 *Atlantic Monthly* 5월호에서 각각 Wright를 미국 흑인 상황을 과장하는 인종 편견자로 매도하면서 사실적이지 못한 최악의 소설이라고 비판했는데, Wright는 이들에 대한 응답으로 *Saturday Review* 6월호에 "How 'Bigger' Was Born"을 발표한 것임

Bigger 안에 담긴 여러 차원의 삶과 리얼리티들, 즉 그의 사적인 개인적 삶, 미국인이자 흑인으로서의 이중적 역할, 두려움과 공포의 요소, 그의 삶의 정치적 함축, 백인 지배의 미국 사회와 그의 관계, 다른 흑인들과 그의 관계, 질척한 도시의 삶 등을⁷⁾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이 작품의 주요 목표로 삼은 것이다.

사실 *Native Son*에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 실제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남부에서 **Chicago**로 옮겨와 **Black Belt**에서 사는 **Bigger** 가족의 지역 환경적 배경은 **Wright**의 그것과 일치하며, **Bigger**의 완고한 반항적 성격은 바로 **Wright** 자신의 성격이며, 백인 아씨의 방에 들어갔을 때의 당혹스런 경험, **Bigger**가 **Mary**와 **Jan**과 함께 들어가야 했던 **Chicken Schack** 식당의 정경 역시 모두 작자 자신의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Mr. Dalton**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Black Belt**에서의 흑인 세입자 착취 행위에 대한 설명은 **Wright**가 신문사의 **Harlem** 특파원으로 그곳의 부동산 실태를 조사한 경험에 기초한 것이며, **Bigger**의 재판 과정과 그에 관한 언론 보도의 묘사는 이 작품을 쓰기 직전인 1938년에 일어난, 흑인에 의한 백인 여자 강간 살해 사건인 **Robert Nixon** 사건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작품의 이러한 자전적 실제적 배경이 이 작품의 사실주의적 특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서술 기법, 예컨대 쥐잡이를 하는 첫 장면, 당구장에서의 **Bigger**와 **Gus**와의 싸움, **Mary**의 살해 장면, **Britten**의 심문과 범행 현장의 발각 과정, 좁혀 오는 포위망 속에서의 **Bigger**의 필사적인 도피 행각 등을 박진감 넘치게 생생히 묘사하는 **Wright**의 뛰어난 사실적 서술 기법이 이 작품을 탁월한 사실주의 소설로 만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작품은 또한 자연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한 소설로 평가 받는다. **Bigger**의 **Mary** 살해 사건, 뒤이은 긴 재판 장면, 그리고 결국 **Bigger**가 전기 의자에 앉게 되는 결말은 **Theodore Dreiser**의 *An American Tragedy*를 곧 연상케 하는데, 사실상 두 작품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이⁸⁾ *Native Son* 을 *An American Tragedy* 의 정통성을 잇는 미국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게 하는 중요한 한 단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Peter Monroe Jack**, **Edward Skillin**, **Clifton Fadiman** 등은 바로 *Native Son*을 *An American Tragedy*의 전통에 서는 자연주의 소설로 평가하는 대표적 비평가들이다. 한편 **Malcolm Cowley**, **Ben Davis Jr.**, **Margaret Marshal**등 역시, *Native Son*을 바로 전해인 1939년에

6) Richard Wright, "How 'Bigger' Was Born." Richard Abcarian ed *Richard Wright's Native Son: A Critical Handbook*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0), p. 25.

7) Ibid pp. 27-8

8) 그 외에도 두 작품의 주인공 **Bigger**와 **Clyde Griffith**의 소위 *American dream*으로 불릴 수 있는 성공예의 꿈, 실제 살인 사건을 모델로 한 사건 설정, 분명치 않은 살해동기와 살해 행위,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의 자기 각성의 가능성등 두 작품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발표된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와 비교하며 안이한 결정론을 피하는 강력한 자연주의 작가로서의 Wright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⁹⁾ 사실 *Native Son*은 자연주의적 요소를 매우 많이 갖춘 작품이다. 문학에서의 자연주의의 개념을, 특히 사실주의와 구분하여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편의상 ‘가능한 최대한의 과학자적 객관적 태도로 인간을 유전과 환경과 순간의 압력에 의하여 그 운명이 좌우되는 하나의 생물로 보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하는 소설’이라는 자연주의 소설의 정의¹⁰⁾를 따른다면, *Native Son*은 외견상으로는 자연주의 소설의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하나의 샘플 같은 작품으로 보일 것이다. 우선 *Bigger*는 백인 우월 사회에서의 열등 흑인종이라는 유전적 조건과 가난과 범죄의 온상인 흑인 도시 빈민가라는 환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우발적으로 *Mary*를 살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의하여 그의 운명이 좌우됨으로써 자연주의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고 있는 셈이다. 작자의 과학자적 객관적 태도에 대하여는 전술한 ‘실험실 속의 과학자처럼’ *Bigger*를 시험관 속에 집어 넣고 관찰하겠다는 Wright 자신의 진술을 통해 이미 천명된 바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자연주의 소설이 대체로 즐겨 다루는 소재와 표현 방법들, 예컨대 빈민굴, 음주, 성적 타락, 살인 등의 소재와 동물 이미지러, 세속적 어휘등의 표현 방법을 고루 갖추고 있기에 자연주의 소설의 표본적 작품이라 일컬을 만하다

이처럼 이 작품은 매우 사실주의적이며 동시에 매우 자연주의적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에서 사실주의적 특성과 자연주의적 특성을 분명히 구분짓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구분짓기는 대개의 경우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훌륭한 사실주의적 혹은 자연주의적 소설로 평가받는 미국 소설의 경우 이 양자의 특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혼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Native Son*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자연주의적 전통은 흑인 문학의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 흑인의 삶에서 사실적 기록과 묘사, 운명의 주제와 결정론적 철학, 그리고 사회비판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해 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 흑인문학은 Frederick Douglass의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같은 노예 설화(slave narrative)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예 설화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기록과 묘사, 사회 고발과 항변의 메시지를 그 주요 내용으로 담은 문학 형식이다. 노예제도의 문제점과 흑인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자각과 함께 1840년대부터 활발히 쓰여지기 시작한 노예설화는 노예 제도하에서의 흑인들의

9) John M. Reilly, ed., *Richard Wright: The Critical Reception*(Burt Franklin & Co., 1978), pp. 39-97 참조.

10) Lilian R. Furst and Peter N. Skrine, *Naturalism* (London: Methuen and Co., 1971), p. 42.

참상을 사실적 기록과 묘사를 통하여 노예 제도의 잔혹한 비정성과 불법성을 고발하고 항변하면서 흑인 문학의 한 전범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후 1850년대에는 흑인 작가에 의한 첫 소설인 William Wells Brown의 *Clotel*이 이러한 뿌리 위에서 개화하면서 이 사실기록적, 사회항변적 요소는 미국 흑인 문학 전통의 척추를 이루어 오게 된다. 그러니까 *Native Son*은 19세기 후반의 Martin Delany, Charles W. Chesnutt, 20세기 초의 W. E. B. DuBois, 그리고 많은 Harlem Renaissance의 “New Negro” 작가들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져온 이 사실 기록 및 사회 항변의 전통에 충실한, 그 필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자전적 작품인 *Black Boy*에서 Wright 자신은 H. L. Mencken, Sinclair Lewis, Theodore Dreiser와 같은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언어가 ‘마치 몽둥이처럼’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¹¹⁾ Wright를 포함한 대부분의 흑인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 무기의문학적 기능은 사회비판적, 프로파간다적일 것임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Native Son*은 흑인문학의 이러한 사회비판적, 프로파간다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이전의 흑인 소설들과는 몇가지 점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차이가 이 소설을 현대 흑인문학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첫째로,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Bigger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을 등장시킨 점이다. 과거의 흑인 소설들이 흑인 주인공이나 주요 등장 인물로서 주로 흑백 혼혈(mulatto)의 중산층지식인, 혹은 정직하고 선량한 “Uncle Tom”이나 “happy-go-lucky darky” 유형의 다분히 정형화된 인물(stereotype)을 설정한데 반하여 이 작품은 흑인 등장 인물로서 기피되어온 이른바 “bad nigger”를 주인공으로 과감히 등장시키고 있다 Bigger는 백인 지배의 흑인 억압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되고 위협하고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찬 비극적 인물로, 무력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그 좌절을 가져온 대상에 대하여 증오와 공격의 자세를 취하는 새로운 흑인상으로 그려짐으로써 이전의 다른 흑인 주인공들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된 것이다.

둘째로, 이 소설은 백인의 흑인 억압과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음으로써 사회 항변(social protest) 소설의 전통을 충실히 이으면서도 흑백간의 단순한 인종 문제만이 아닌 새로운 역사 의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비판과 항변의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전환의 모색은 Wright 자신이 10여년 동안 그 안에 몸 담고 참여해 온 공산주의 활동 경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¹²⁾ 그것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인가 그렇지 않은가,¹³⁾ 그 시도의 결과가 문학적 성공을 이룩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 시도 자체의 의의는 결코 과소 평가

11) Richard Wright, *Black Boy* (New York. Harper and Row, 1966). p. 272.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때까지의 대다수의 백인 동화주의 (white assimilationism)적인 소극적 항변소설들과는 달리 이 작품은 흑인 민족주의 (black nationalism)적인 적극적인 항변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세째로, 흑인 소설들이 대체로 남부의 농장이나 소도시를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Native Son*은 북부 대도시의 흑인 빈민가를 배경으로 그곳의 충격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물론 Paul Lawrence Dunbar, Charles W. Chesnutt, James Weldon Johnson, Claude McKay 등 Harlem이나 대도시를 작품의 무대로 활용한 흑인 작가들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 배경으로서일 뿐 *Native Son*에서처럼 대도시의 흑인 빈민가가 삶의 현장으로서 이처럼 철저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그곳에서의 흑인들의 삶이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작품의 주제적 내용 자체로서 이처럼 밀도 짙게 그려진 적은 없었다. Stephen Crane의 *Maggie*나 Dreiser의 몇몇 작품이 보여주는, “도시적 사실주의”(urban realism)라는 이름으로 불릴만한 이러한 특성은 흑인 작가로서는 Wright에 의하여 처음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II

위에서 잠시 살펴본 대로 Wright는 본질적으로 미국 문학의 사실주의적 자연주의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주제 의식의 확장파 사실주의적 묘사의 극대화를 위하여 그는 심리적 측면이나 상징적 요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따라서 이 심리적 상징적 요소를 담은 그의 표현 기법 또한 우리가 *Native Son*을 평가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평자들은 Wright의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의 주제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그의 표현 기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Native Son is one of those books in which everything is undertaken with seriousness except the writing.”¹⁴⁾이라는 R. P. Blackmur의 논평은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Blackmur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Wright가 ‘글쓰기’(writing)자체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한’(serious)배려를 하고

12) Wright는 1932년 좌파 문예클럽인 John Reed Club의 시카고 지회에 가입하여 *New Masses* 등 좌파 정기 간행물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1933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7.8년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그 후 집필 작업과 당 업무 사이에서 차츰 갈등을 느끼다 1944년 공산당에서 탈당하였음

13) Paul N. Siegel은 “The Conclusion of Richard Wright’s *Native Son*”에서 Max가 공산당원이 아니며 그가 법정에서 개진한 내용이 결코 공산주의의 이론이 아님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음

14) Richard Abcarian, v.

있는가를 그의 “How ‘Bigger’ Was Born”은 잘 보여 준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And always I tried to *render, depict*, not merely to tell the story. If a thing was cold, I tried to make the reader *feel* cold, and not just tell about it. In writing in this fashion, sometimes I'd find it necessary to use a stream of consciousness technique, then rise to an interior monologue, descend to a direct rendering of a dream state, then to a matter-of-fact depiction of what Bigger was saying, doing, and feeling.¹⁵⁾

이어서 그는 독자들이 **Bigger**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경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시간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도록 **close-up, slow-motion** 등의 영화적 기법을 구사하였으며, **Bigger**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강조 효과를 위하여 오직 **Bigger** 한 사람만의 시점(**point of view**)을 관철시켰고, 짧은 시간 안에서 가능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면들을 길게 잡았다고 밝히고 있다.¹⁶⁾ 이처럼 표현 기법에서의 **Wright**의 세심한 배려는 실제로 작품에 생동감과 박진감을 불어 넣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환유적 비유, 예표(**foreshadowing**) 등의 상징 수법과 적절한 이미지로서의 구사는 이 작품의 주제적 깊이를 더 해주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이러한 상징 기법이 성공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좋은 예이다. 어머니, 누이동생, 동생, **Bigger** 이렇게 두 여자와 두 남자의 한 가족이 좁은 한 공간에서 모든 **privacy**가 거부된 상태로 살고 있는 첫장면은 흑인 빈민가의 삶의 강렬한 환유적 이미지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뒤 이은 쥐잡이의 소동은 여러가지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쥐의 갑작스런 등장이 불러일으키는 불쾌감과 혐오감은 흑인의 불결하고 추악한 삶의 현실을 곧 떠올리고 신문지로 덮은 죽은 쥐의 피는 **Mary**의 살해 후 그녀의 시체에서 신문지로 떨어지는 피를 예시적으로 암시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반항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쥐의 운명은 **Bigger**의 운명의 예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흑인 상황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Bigger**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의 상징적 모습이라할 수 있는 쫓기는 쥐를 **Bigger** 스스로 살해하는 행위는 자기자신을 죽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서의 **Bigger**의 비극적인 모습을 아이러니칼하게 시사하고 있다. 흑인들의 불가능하고 아득한 열망과, 그것과 대조적인 백인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상징하는 비행기의 비상, **Mary** 살해의 악마성과 **Bigger**의 죄의식 및 공포 심리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붉게 타오르는 난방로의 불꽃, **Bigger**의 눈 앞에 어른대는 “흰얼룩”(white blur), **Poe**의 검은고양이를 연상케하는 **Mrs. Dalton**의 흰 고양이, 차고 흰 그리고 냉혹한 자연의 힘으로서의 눈

15) Richard Wright, "How 'Bigger' Was Born", p. 33

16) *Ibid.*, pp. 33-4

등 백인 세계와 **Bigger**와의 복합적 관계를 암시하는 흰색의 상징등은 이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상징 기법의 또다른 주목할만한 예들이다 *Native Son*에서의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들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James A. Emanuel**은 이외에도 온도 대조, “blot out” 이미지, 눈멀(blindness)의 상징적 이미지등 많은 예를 열거하고 있다.¹⁷⁾

특히 눈멀의 상징은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과 백인과의 근본적인 관계, 바로 그 자체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Bigger**가 처음 **Mr. Dalton**집에 찾아 갔을 때 그는 자기자신에 관한,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알아들을 수 없는, **Dalton**부부의 대화를 들으면서 눈먼 것처럼 느낀다. (“He felt strangely blind.”) 그는 **Mrs. Dalton**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고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기자신도 눈먼 상태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기분을 경험한다. 특히 **Mary**의 살해 후에, 그리고 유괴 가장의 범행을 계획할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Bessie**까지도 눈이 멀어 있음을 절감하고 그들의 눈멀 상태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 이용하기까지 한다. 사실 백인과 흑인간의 교감 불능의 단절 관계는 그들사이의 이러한 눈멀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종차별적인 백인은 물론, 흑인을 이해하고 흑인의 복지를 위해 봉사한다는 백인 자선가인 **Dalton**씨 부부도 흑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 탁구대를 기증하는 식의 백인의 자선 행위를 흑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Dalton**씨 부부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Dalton**씨 부부에게 있어서 **Bigger**는 자기 방식으로 자선을 베풀, 구제와 교정의 대상이요 추상적 개념의 흑인일 뿐 한 구체적 인간, 한 개인으로서의 **Bigger**가 아니다. **Mrs. Dalton**이 장님이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아주 적절하다. **Bigger**에게 백인로서는 파격적인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Mary**와 **Jan**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Bigger**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멀의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흑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이나 사명감만을 생각했지 그 호의가 **Bigger**에게는 얼마나 곤혹스런 당혹감과 고통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호의의 결과가 **Bigger**의 일자리를 잃게 함으로써 그의 생존에 얼마나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인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Bigger**는 한 개인으로서의 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추상적인 흑인의 유형일 따름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백인들만이 아니라 흑인들도, **Bigger** 자신도, 모든 백인들을 구체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 유형이나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서로에게 서로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눈멀 상태의 상징적 의미가, 제목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듯이 **Ralph Ellison**의 *Invisible Man*에서 더욱 심각한 주제로 발전되어가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17) **James A. Emanuel**, “Fever and Feeling: Notes on the Imagery in *Native Son*.” **Richard Abcarian**, ed., *Richard Wright's Native Son*.

Emanuel은 또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 자주 반복되고 있는 두가지의 상징을 상술(詳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방 한가운데 서있는” Bigger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벽과 커튼”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에서 살펴본 상징들이 주로 흑백의 갈등, 인종 문제등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두 상징적 이미지는 흑백 관계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조건과 실존의 상황 자체를 암시하는 실존주의적 주제와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방 한가운데 서 있는 Bigger의 모습은, Emanuel의 암시처럼 극도로 긴장된 순간의 Bigger의 상태, 그의 움직임이나 생각을 제한하는 갇힌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동작의 가능성이 얼어붙어 정지되어 있는 순간의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 실존의 상황의 상징적 은유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벽과 커튼의 이미지에 대하여는 Emanuel은 “무관심과 고립의 방패”(a shield of indifference and detachment), “인위적 단절”(artificial separation), “덫에 걸림”(entrapment)등의 13가지 상징적 의미를 항목을 매겨 가며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¹⁸⁾ 실존주의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벽”의 상징, 그 상징이 암시하는 이러한 소외, 고립, 단절, 억압의 요소들은 곧 인간의 근원적 생존 조건, 인간이 처한 실존적 한계 상황을 뜻하는 것임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Native Son*을 사회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주의적/자연주의적 사회 항변의 소설로 읽을 때, 그리고 Bigger를 흑인을 대표하는 유형적 인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이러한 실존주의적 요소를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Native Son*의 인종적 주제(racial theme)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의 문제, 개인의 자유 추구와 같은 이 작품의 보다 근원적인 주제에 주목하고, Bigger를 그러한 자유 의지의 행사와 자유 추구의 주체로서의 한 개인으로 이해하려고할 때, 우리는 이 작품의 결코 만만치 않은 실존주의적 특성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IV

Wright는 자신의 모든 삶이 문학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지향하게끔 자신을 형성해 왔다고 말한 바 있지만 Saunders Redding이 시사한 대로 흑인의 경험이란 동시에 사실적이며 실존적인 것으로서,¹⁹⁾ Wright 자신도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흑인 민족주의적 의식에 기초한 사실주의적 관심과 흑인의 삶의 조건의 부조리에 대한 자각에 근거한 실존주의적 관심을 함께 보여 왔다. 일반적으로 Wright의 문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전기는 사실주의적/자연주의적으로 후기는 실존주의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Uncle*

18) Ibid., pp. 166-67.

19) Addison Gayle Jr., “Richard Wright: Beyond Nihilism.” Richard Abcarian ed., *Richard Wright's Native Son*.

*Tom's Children*에 수록된 초기의 단편들은 Wright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미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결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Wright는 처음부터 흑인이 당하는 억압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항변하는 일 못지 않게 억압적 환경에 갇힌 사람이 받는 고통과 고뇌를 알리는 일을 작가의 임무라 생각했고, 그의 이런 생각은 인간 정신은 자유로워야 하고 어떤 인위적 제도나 장치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다분히 실존주의적인 인식으로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다. *Native Son*의 Bigger는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창조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Bigger의 맹아를 “Big Boy Leaves Home”의 Big Boy에서 (“Big”과 “Bigger”라는 이름의 차이에 주목해 볼만 하다.), *The Outsider* 등의 후기 소설의 실존적 주인공들의 태아를 Bigger에게서 발견함으로써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Wright의 이런 인식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일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실존주의적 인식은 처음엔 Dostoevsky, Kierkegaard, Nietzsche등으로부터 나중에 Camus나 Sartre같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Wright 자신이 경험한,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들의 부조리한 삶의 조건이라는 한계 상황,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됨이 요구하는 “이중적 비전”의 구속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Macksey와 Moorer도 지적하고 있듯이 Wright는 서구의 여러 작가나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토속적인 강한 실존적 관심들, 예컨대 “깊은 소외감”, “한계 상황”, “인간조건의 부조리”, “고뇌, 불안, 두려움, 죽음의 편재성”, “선택의 세속적 윤리”에 관한 관심들을 그 나름대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²⁰⁾

일반적으로 흑인 항변소설의 표본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Native Son*에서도 Wright는 흑인 문제에 대한 어떤 집단적 성격의 정치적 사회적 해결 방안의 모색과 함께 Bigger에 초점을 맞춘 개인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집요한 탐색을 시도하며 이 양자를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비록 그 노력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소설이, 특히 이 소설의 제3부(Book Three)가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심각한 긴장감은 바로 그러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Wright의 탐색과 그 탐색의 초점이 되는 한 개인으로서의 Bigger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제3부에 대한 분석에서도 Max의 법정 변론을 통하여 개진되는 공산주의적 ideology와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Bigger에 대한 관심은 아주 소홀하거나 극히 피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Ronald B. Gibson은 Bigger를 하나의 사회적 존재(social entity), 흑인을 대표하는 한 유형으로만 보고, 고뇌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Bigger 자신을 보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Baldwin의 예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즉 “[Bigger] wants to die because he glories in his hatred;”나 “All of Bigger’s life is

20) Richard Macksey & Frank E. Moorer, p. 14

controlled, defined by his hatred and his fear.” 같은 Baldwin의 결론적 주장은 인간의 근본적 고독에 대한 인식을 거쳐 결국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자기 책임, 자기 수용 (self acceptance)의 단계에 이르는 Bigger의 모습을 간과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Bigger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이며, Baldwin의 이런 잘못은 *Native Son*을 흑인 소설이나 사회향변 소설로만 보려는 단순 사고에 기인한다고 말한다.²¹⁾ Paul N. Siegel 역시 대표적인 백인 비평가인 Irving Howe와 Robert Bone의 예를 들어 Bigger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Siegel에 의하면 Bigger가 자신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하는 제3부의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그 대답이 주어지는데 “At the end, Bigger remains at the mercy of his hatred and fear.”라는 Howe의 논평이나 “What terrifies Max is that Bigger, repossessed by hate, ends by accepting what life has made him: a killer. Bigger’s real tragedy is not that he dies, but that he dies in hatred.”라는 Bone의 해석에 담긴 Bigger의 모습은, 흑인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끌어 올려줄 수 있을 그러한 자기 이해, 자기 확신을 결국 획득한 Bigger의 참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²²⁾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Bigger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Baldwin, Howe, Bone의 이러한 일치된 견해는 Max의 살해 전, 살해 사건 후의 도피 과정, 그리고 체포된 후 마지막 장면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Bigger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igger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Bigger를 흑인 항변소설의 하나의 고정된 유형적 인물로 보는 그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들 수준의 문학적 감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일반 독자들도 특히 제3부에서 Bigger에게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Bigger의 의식의 변화는 Mary의 살해 후 곧 나타나기 시작한다 Mary의 살해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긴 했지만 그 사건은 Bigger의 삶에 결정적인 한 전기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다. 그는 Mary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범행을 줄곧 생각해 왔음을, 따라서 그 살해 사건은 그러한 자신의 숨겨진 욕구의 필연적 산물이었음을 깨닫고, 그 살해 행위를 통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행사했다는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 안에 쥐고 있음”으로해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있고 범행 사실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자

21) Donald B. Gibson, “Wright’s Invisible Native Son” Richard Macksey & Frank E. Moorers, ed., *Richard Wright*.

22) Paul N. Siegel, “The Conclusion of Richard Wright’s *Native Son*..” Richard Macksey & Frank E. Moorers, ed., *Richard Wright*.

유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고양된 기분은 그의 도피 행각 중에도 계속되지만 그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자유로움과 그의 도피 공간을 점점 조여 오는 물리적 압박감은 아이러니칼한 대조를 이룬다. 그의 도피 공간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도 그는 항복 거부하며 백인들의 손에 결코 생포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그가 체포된 후 그 고양된 느낌은 차츰 무력감으로 가라앉아 가고, 그는 자신이 진실로 자유로운게 아님을 깨달으며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동시에 그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극복케 하고 그 공포에 갇힌 자신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을 새로운 양식의 삶을 갈구하기도 한다.

And, under and above it all, there was the fear of death before which he was naked and without defense; he had to go forward and meet his end like any other living thing upon the earth... he hungered for a new mode of life.... There would have to hover above him.. a vast configuration of images and symbols whose magic and power could lift him up and make him live so intensely that the dread of being black and unequal would be forgotten; that even death would not matter, that it would be a victory... a new pride and a new humility would have to be born in him, a humility springing from a new identification with some part of the world in which he lived, and this identification forming the basis for a new hope that would function in him as pride and dignity.²³⁾

재판이 진행되고 그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오는 동안 **Bigger**는 새로운 삶이 가져올 수 있을 이러한 “new identification”, “new pride”, “new humility”의 상태에 다가가기도 하고 다시 멀어지기도 하면서 고뇌와 갈등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Max**는 **Bigger**의 살해 행위가 지닌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Bigger**를 설득하여 구원하려 하고 **Hammond** 목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그를 교화하려 하지만 **Bigger**는 **Max**의 이데올로기나 **Hammond**목사의 종교적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고뇌를 통하여 차츰 얻어 가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 위에서 어떤 자기 정체감을 향해 나아간다. 즉 그는 여태까지 두려워 피해 왔던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통해서 차츰 자신과의 화해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Gibson**도 시사하듯이²⁴⁾ **Bigger**의 이 나아감의 여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홀로임(solitary nature)이다. 그는 비록 그의 움직임이 균형잡히지 못한 불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움직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일 수 밖에 없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자기 자신일 뿐이며, 자신에 대한 깨달음 혹은 확실한 지식이 가능하다면 그 역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거듭 확인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런 자기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Bigger**는 마지막 장면에 이른다.

23) Richard Wright, *Native Son* (New York: Harper and Row, 1940), p. 256.

24) Donald Gibson, p. 97.

“Ah, I reckon I believe in myself... I ain't trying to forgive nobody and I ain't asking for nobody to forgive me. I ain't going to cry. They wouldn't let me live and I killed. Maybe it ain't fair to kill, and I reckon I really didn't want to kill. But when I think of why all the killing was, I begin to feel what I wanted, what I am... I didn't want to kill!... But what I killed for, I am!....”²⁵⁾

Bigger가 결국 자신을 믿게 된 것도, Max와 Jan, 어머니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조건 지운 증오와 두려움과 죄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행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수 있는 실존적 자각에 이르게 된 것도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획득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 장면의 Bigger의 모습은 Camus의 *L'Etranger*의 주인공 Meursault를 곧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실존주의적 인물의 그것이다. 그 모습은 흑인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everyman)으로서의 고뇌하는 모습, 미국흑인으로서의 Bigger가 처한 불안과 고통의 상황이 곧 현대의 실존적 상황임을 암시하는, 20세기 현대인의 상징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Native Son*은 이러한 Bigger의 실존적 삶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 문제, 인간 행위의 의지와 자유의 본질문제, 고독과 소외의 문제, 흑인의 삶으로 형상화 되는 부조리한 인간 조건과 한계 상황, 불안과 공포와 죄의 심리, 비합리적 자아의 고통스런 항해 등 실존주의 소설의 거의 모든 주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V

그런데 Bigger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가지 사실은 Bigger의 실존적 깨달음을 농축시킨, “What I killed for, I am!”이라는 결정적 각성이, ‘killing’이라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이 폭력(violence)의 모티프는 *Native Son*의 주악상(leitmotif)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 작품의 여러 주요 요소에 유기적 연관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실 *Native Son*은 폭력의 본질에 관한 탐구의 이야기라 할 만큼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으로 가득차 있으며 *Native Son*의 강렬한 인상 역시 무엇보다도 폭력적 요소를 다루는 그 잔혹할 정도로 비정적인 사실성에서 온다고 보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첫 장면부터 격렬한 폭력의 상황으로 시작된다. Bigger의 아파트 방안에 갑자기 쥐 한마리가 나타나면서 그 조그만 공간은 마치 “전기가 통하듯 격렬한 행동으

25) Richard Wright, *Native Son*. pp. 391-92

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The tiny one-room apartment galvanized into violent action.”) 쥐를 가리키는 Vera의 눈에는 “넋나간 공포감”(“fascinated horror”)이 담기고, 막다른 구석으로 쫓기던 쥐는 “두려움으로 배를 팔딱대며”(“pulsed with fear”) 뒷발로 일어서서 공격의 자세를 취하며, “그놈을 죽여라!” (“Kill'im”)는 어머니의 외침 속에 Bigger는 프라이팬으로 쥐를 때려 잡은 후 머리를 짓이겨 “박살을 내고”(“crushing [thehead]”), 마루는 쥐의 피로 얼룩진다(“smear of blood”). “violent”, “horror”, “fear”, “kill”, “crushing”, “blood” 등의 단어를 통하여 난폭하고 격렬한 이미지를 밀도 짙게 전달하고 있는 이 첫장면은 뒤이어 일어날 일련의 폭력적 상황에 대한, 그리고 Bigger의 삶에서 폭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예시적(豫示的) 묘사로서 매우 성공적이다. 그날도 집을 나서면서 Bigger는 그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의식하고 직시한다면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죽일”(“kill himself or someone else”) 수 밖에 없을 것같은 불길한 예감을 거둬 느끼며, 따라서 현실을 외면하려는 “무관심”(“indifference”)과 그 무관심의 반작용으로서의 “폭력적 행동”(“violent action”)의 반복이 자신의 삶의 리듬임을, 그 리듬은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force”)으로서 자신이 순간적으로나마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Gus에 대한 폭행은 바로 이 폭력적 행위의 리듬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Bigger는 그날 오후 백인 가게를 털기로 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Gus에게 싸움을 걸어 폭행을 가하지만 Gus와 싸움을 벌인 사실상의 이유는 처음으로 백인을 털기로 한데 대한 Bigger 자신의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이 “두려움”은 “증오”와 함께 Bigger의 삶의, 나아가 미국 흑인들의 삶의,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의 폭력적 행동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Mary Dalton의 살해라는 이 작품의 결정적 사건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제1부의 제목이 “두려움”(“Fear”)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Bigger는 흰 눈이 상징하는 냉혹한, 인간의 힘의 한계 밖에 존재하는 거대한 “자연의 힘”(“natural force”)과 같은, 그리고 그가 갖고 있지 못한 강력한 힘으로 그를 옥죄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백인 사회에 대하여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강요하는 대상에 대하여 증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증오감은 대체로 “무관심”의 표면 밑에 억눌려 있지만 그가 어떤 삶의 의미를 의식하거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때 그의 삶의 리듬에 있어서 “폭력적 행동”으로 분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두려움과 증오와 폭력은 Bigger의 삶의 조건이며, 또한 백인 지배의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흑인들의 삶의 조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Gus에의 폭력행사는 백인에 대한 두려움과 백인과의 대면에서의 무력감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며 그 행위가 잔혹한 것은 그의 두려움과 무력감에 대한 자의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Gus와의 싸움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Mr. Dalton

집에 찾아갈 때 **Bigger**는 이러한 무력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권총을 몸에 지니고 가기로 결심한다. 백인 세계에 나가 생활하려면 칼이나 권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Bigger**의 생각은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백인과 동등한” 느낌, 그리고 어떤 “충족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so he would take his knife and his gun; it would make him feel that he was equal of them, give him a sense of completeness.”). 그러니까 **Bigger**에게 있어서 백인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옥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인이 가지고 있는 힘, 총이나 칼로 상징되는 그 힘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즉 폭력의 행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Mary**의 살해는 비록 우발적인 것이긴 하지만 **Bigger**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폭력의 역학에 대한 이러한 의식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Mary**의 살해 후 **Bigger**가 느끼는 자유로움, “새로운 삶을 창조” 해낸 것 같은, 뭔가 처음으로 자신이 책임질 일을 해낸 것같은 성취감, 그리고 **Mary**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이 백인과 동등해진 것같은, 여태까지 “당하기만 하다가 드디어 복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p.155)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Bigger**는 자신에게 어느 백인보다도 더 친절하게 대해준 **Mary**를 살해한데 대해서도 후회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Mary**의 뼈가 발견되었을 때는 다시 백인에 대한 폭력의 욕구를 느끼기도 하며 (p.206), 유괴를 가장한 새로운 범죄(또하나의 폭력 행위로서의)를 계획하기까지 한다. 도주의 과정에서 **Bigger**는 어쩔수 없이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의 걸 프렌드인 **Bessie**를 또 살해하게 되는데, 이 두 살인 행위를 통해 그는 가장 의미있는 일을 수행했다는, 자신을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 했다는, 자신의 “힘있음” (“sense of power”)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체포되는 순간까지 **Bigger**는 경찰의 집요한 공격에 끈질기게 저항하며 자신의 힘과 폭력의 유효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 폭력의 이야기는 제2부에서 일단 끝을 맺지만, 이 폭력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하여 고뇌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결국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결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Bigger**의 각성은 제3부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제3부에서 또다른 종류의 폭력, 물리적 폭력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심각하고 근원적인 폭력, 흑인에게 가해지는 언론과 사법 제도의 편견적 횡포로 상징되는 정치적, 제도적 폭력을 목격하게 된다.

이렇듯 *Native Son*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의 폭력에 접하게 되지만 그것들은, 크게 백인이 흑인에게 가하는 폭력과 흑인이 백인에게 가하는 폭력, 그리고 흑인이 흑인에게 가하는 폭력의 세가지 형태로 나뉘볼 수 있다. 흑인에게 가하는 백인의 폭력은 위에서 언급한 제3부에서의 언론과 사법제도의 횡포, **Black Belt**에서의 흑인 세입자에 대

한 착취 행위 등을 제외하면 이 작품에서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백인의 폭력은 **Bigger**의 삶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흑인들의 삶을 조건 짓고 **Bigger**의 모든 행위에 동기 부여를 하는 원천으로서 이 작품 자체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백인의 이 폭력은 흑인을 희생자로 하여 백인 사회의 지배 체제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René Girard**가 말하는 이른바 “祭儀的(ritual)” 폭력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Girard**는 인류 문화를, “모방 위기”(mimetic crisis)의 폭력에 기초하여 희생양이라는 제의적 장치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보는데²⁶⁾ **Girard**가 말하는 이러한 제의적 폭력은, 폭력에는 좋은 폭력과 나쁜 폭력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나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양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서, 순화적인 좋은 폭력으로 정당화된다. 즉 **Girard**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사회는 무슨 댓가를 치르고라도 그 사회가 보호하려고 애쓰는 자신의 구성원을 해칠지도 모르는 폭력의 방향을 돌려서, ‘희생할만한’ 희생물에게로 향하게”²⁷⁾ 하는 것이다.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희생물은 흑인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대리 희생자에게 죄를 씌우는 과정은 민족과 문화의 차등적 구분을 낳게 되고 미국 사회에서의 흑백의 차별도 결국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irard**에 따르면 이 희생화 과정이 일으키는 박해자와 희생자 사이의 갈등은 복수의 위험 상태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는 것이 사법 제도라는 것인데, 그 사법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막강한 정치 권력과 관련되어야만 하므로 모든 사법 제도는 종교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폭력에 기초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 *Native Son*의 제3부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사법 제도의 폭력은 바로 이와 같은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류 문화의 전개와 연관짓는 **Girard**의 폭력 이론이 흑인에게 가하는 백인의 폭력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 백인에 대한 흑인의 폭력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역학적 갈등을 설명하는 **Frantz Fanon**의 식민지 폭력 이론에 의하여 잘 검증될 수 있다. **Fanon**에 따르면 피식민자가 처음 배우는 것은 항상 자신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꿈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용기, 그리고 공격의 행동이다. 그런데 이 공격성은 먼저 그 자신의 종족에 대해서 자기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식민자들의 명령에 직면할 때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과 죄의식을 느낀다. 그러나 그 죄는 그가 승복하는 것이

26) **Richard Macksey & Frank E. Moorer**, p. 18에서 재인용

27)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김진식, 박수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1993 p. 14.

28) *Ibid.* pp. 32-39

아니어서 죄로서보다는 저주로 받아들이며 억압을 당하지만 결코 질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오면 언제든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그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식민지 세계는 적대적이지만 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고, 자신은 피억압자이지만 그의 꿈은 박해자가 되는 것이다. 피식민 지식인들은 대체로 식민지 세계에 동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착취를 당하는 무산 계급의 대중들은 오직 폭력만이 보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의 요구를 타협을 거부한 폭력의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식민주의란 이성적 기능을 갖춘 제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폭력에 직면했을 때만 굴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²⁹⁾

Fanon의 이러한 식민주의 이론은 미국 사회에서의 흑백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주요 이론은 *Native Son*의 Bigger의 행동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검증되고 있다. 예컨대 백인과 동등감을 느끼게 해줄 힘에 대한 강한 열망, 백인에 대하여 부당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감, 승복할 수 없으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의식, 백인 세계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선망, 공격 욕구와 폭력의 정당성에의 믿음 등 Bigger의 심리 작용과 행동은 Fanon의 이론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Gus에 대한 Bigger의 폭행은 흑인이 흑인 스스로에게 가하는 세번째 형태의 폭력으로, Fanon이 지적한 바 있는 자신의 종족에 대한 피식민자들의 자기 파괴적인 공격 욕구 총족의 극명한 예이다. 흑인 스스로에 대한 흑인의 폭력은 흑인들의 공격 욕구와 긴장 해소의 욕구, 자기 증오와 자기 파괴 욕구, 백인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역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Fanon은 식민자들에게는 비이성적 행위로 보이는 피식민자들 부족 혹은 개인간의 정기적인 유희 폭력은 바로 이러한 공격 욕구와 근육 긴장을 분출시키기 위한 집단적 자기 파괴, 자살적 행위의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³⁰⁾

위에서 잠시 살펴 본 백인과 흑인의 삶에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폭력은 각각 위험한, 나쁜, 혹은 부당한 폭력을 방지, 제거, 혹은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이처럼 폭력을 억제하려는 방법과 수단은 모두 폭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폭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폭력의 근원적인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의 삶, 특히 현대인의 삶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며 또 생존의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희생 제의나 사법제도, 종교 제도 등 인간 사회의 모든 의식(儀式)이나 제도나 관습은 근원적으로 권력/폭력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이 점에 있어서 Michel Foucault의 생각도 Girard의 그것과 멀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폭력적 억압적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현대의 삶에서 더욱 강

29)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Constance Farrington (New York: Grove Press, 1966) pp. 41-50 참조.

30) Frantz Fanon, "Concerning Violence", Richard Abcarian ed., pp. 231-32

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소설에서 폭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Wright는 현대 소설의 선구적 역할을 한 작가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일이다.

Wright가 병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폭력에 집착한다는 Alfred Kazin의 비판은³¹⁾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이긴 하지만 Howe가 지적하듯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폭력이나 잔혹함 등의 극한적 효과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과,³²⁾ 폭력은 미국 흑인의 삶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라는, 폭력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 흑인의 삶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폭력의 모티프는 무엇보다도, *Native Son*의 얼핏 대립적으로 보이는 두 요소 즉 사실주의적/자연주의적 요소와 실존주의적 요소 양자에 있어서 공히 핵심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두 요소에 유기적 연관성을 부여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백인 지배의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그리는 이 소설에서 그 삶의 근원적 조건인 폭력이 핵심적 모티프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하며, 한편 이러한 흑인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폭력의 제도적 산물인 인간 사회의 실존적 상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의 실존적 인식 또한 인간의 자유 의지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밀접히 연관된 폭력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폭력은 이처럼 사실주의와 실존주의라는 이 소설의 두 축의 균형을 이루는 라이트모티프로 기능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통일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I

지금까지 *Native Son*의 분석을 통하여 이 작품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와 특성, 즉 사실주의적/자연주의적 요소, 상징적 기법, 실존주의적 요소, 폭력의 모티프 등을 특히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나 중요성, 특히 흑인 항변 소설의 새 지평을 열고, 현대 실존주의 소설의 기초를 다지고, 현대 소설의 핵심적 주제인 폭력의 주제를 일찌기 강조한 그 선구적 역할, 즉 현대 소설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데 기여한 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기존의 미국 소설의 전통을 충실히 이어 발전시킨 정통적인 미국 소설로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Native Son*이 미국 흑인 소설의 사실주의적 전통을 잇는 중추적 작품이며 미국 자연주의 소설의 전통의 주축을 이루는 대표적 작품임을

31) Irving Howe, "Black Boys and Native Sons," Richard Abcarian ed., p. 140.

32) Ibid. p. 140.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이 작품은 또한 미국 소설의 전통적인 주제나 모티프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 소설의 고전적 작품이라 일컬을 만하다. 예컨대 미국 소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도피(escape) 혹은 추구(quest)의 주제는 Bigger의 불안정한 삶의 역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범행 후의 Bigger의 “도주”(Flight)와 감옥에서의 자기 정체성의 추구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도피/추구의 주제와 밀접히 연관된 입문(initiation) 및 여행(journey)의 모티프는 Mary의 살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Bigger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입문을 위한 상징적 여행이라는 점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어떤 다른 세계”(A World Elsewhere)라는 Richard Poirier의 비평서의 제목이 시사하듯 미국의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집요하게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어떤 다른 장소”의 모티프는 자신의 삶을 옥죄는 갇힌 공간에 대한 Bigger의 강한 불만, 그리고 그 공간으로부터 어떤 열린 물리적,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해방에 대한 그의 집요한 열망에 잘 담겨 있다. *Native Son*의 간판격 주제라 할 폭력의 주제 역시, 미국 문학의 중요한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억압적 권력이나 폭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 폭력의 본질을 파헤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의 억압 규제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노력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물론 서두에서도 잠시 밝혔듯이 *Native Son*의 결함을 지적하는 평자들도 많다. 실제로 *Native Son*에는 몇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부에서 1,2부의 박진감 넘치는 사실적 서술 방법을 유지하지 못하고 설명식 서술 방법으로 주저 앉고 만 형식적 약점, 이 형식적 약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Max를 통하여 전달하려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역사 의식이 예술적으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점, 그리고 흑인의 문제를 너무 거칠고 원초적인 차원에서, 오직 흑백 간의 갈등과 투쟁이라는 관점에서만 다룸으로써 흑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 *Native Son*이 이룩한 여러가지 중요한 문학적 성취들, 그리고 현대 소설에서의 *Native Son*의 높은 문학사적 위상은 손상없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Richard Wright's *Native Son***Seung-Gul Czon**

Critics tend to read Richard Wright's *Native Son* either as a naturalistic novel or as an existential on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novel not in such a traditional either/or way but in a both/and perspective. To do this, this article is first examining both naturalistic and existential elements of the novel respectively, and then relating both elements as part of the organic whole which brings the structural unity to the novel. In relating those two elements I put the emphasis on the traditional context not only of the Afro-American novel in particular but also of the American fiction in general. Finally this article is exploring the organic relation between these two elements in the light of 'violence', which as the leitmotif of this novel gives it the thematic as well as the structural unity.